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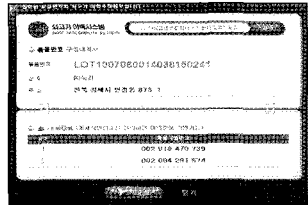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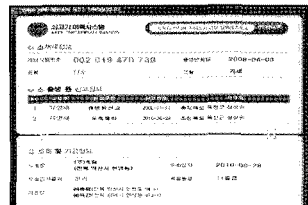


최고기 이력제

묶음번호 이력정보 조회서비스 실시

- 최고기 이력정보 제공은 개체식별번호에 한정하여 휴대전화(6626) 또는 홈페이지를 (www.mtrace.go.kr)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묶음번호의 경우는 정보조회를 할 수 없어 금년 1월부터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묶음조회서비스는 최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묶음번호를 홈페이지의 조회란에 입력하면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고 그 이후 절차는 7종방법과 같이 이력정보가 조회 가능한 서비스이다.

설명	조회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접속 ○ 개체식별정보 조회란에 '묶음번호(LOT포함)'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ex) 묶음번호 예시 - LOT1007060014038150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묶음번호의 업소정보 및 개체식별번호 내역이 조회됨 ○ 조회된 하단 개체식별번호를 클릭하면 클릭된 개체의 이력정보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정보 조회 결과 화면 	

경기지역

용인시, 축산농가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경기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등에 대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이동제한을 한 축산농가와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가

공·사료 업체, 유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5천만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또는 관련업체 등에서 용인시로 지원 신청을 하면 시는 지원 희망자별로 지원한도액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축협 등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자금 지원을 받은 축산 농가 등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축산업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생각하고 전화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받은 후 이동제한

이 해제되었을 때 대출 신청서에 날인만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 등이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적체와 거래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상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관동대 구제역·AI 피해 학생 지원

관동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의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본 축산 농가의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피해 농가의 자녀로 올해 학부에 등록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등록금의 70%를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청서를 학생경력개발처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지역

진안군, 축산 청정지역 이미지 확고히 다져

전국이 구제역으로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 27개 농가는 ISC 농업발전연구소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해 안전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의 하나로 사육장 여건과 입식 및 번식방법, 질병관리 방법, 무항생제 사료 검정에 대해 인증심사기관의 심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금번 인증을 취득한 농가의 인증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까지(2년간)이며 인증 사육두수는 총 1천613(육우 1천423, 낙우 190)두로 이들 농가 중 일부는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인증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청정진안의 안전축산물 생산 이미지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역

순천시, 유기질 비료 지원 공급

순천시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3억7천여 만원을 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3만8253톤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퇴비는 부산물 비료 3만5197톤, 유기질 비료 3만65톤이며 가축분퇴비 및 혼합 유박을 비롯한 유기질 퇴비 등 5개 품목으로 비종에 따라 20kg 1포대당 천300원에서 2천5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축산분뇨, 음식물 등 비료 원료구입 및 타지역에서 생산된 비료 제품의 공급을 금지하고 전량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해 구제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35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유기질 비료 4만85톤을 농가에 공급했다.

제주지역

제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11억 투자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총사업비 보조 5억5천만원, 융자 5억5천100만원 등 11억100만원을 투자, 시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 총 80개소에 지원한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퇴비 및 액비화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 2012년부터 중단되는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배출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 시설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실용화를 통한 농경지 지력 향상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토양환경개선(알칼리화)을 통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경종농업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